

WEBVTT

00:00:08.936 --> 00:00:09.980

여러분, 안녕하세요?

00:00:10.005 --> 00:00:15.434

이번 시간에는 이범선이라는 작가의  
오발탄이라고 하는 작품을

00:00:15.459 --> 00:00:17.687

살펴보겠습니다.

00:00:29.725 --> 00:00:30.789

오발탄.

00:00:30.914 --> 00:00:34.137

잘못 발사된 탄환이라는 얘기죠.

00:00:34.542 --> 00:00:40.755

그런데 여러분, 곳곳에  
오발탄이라고 하는

00:00:40.780 --> 00:00:44.780

양 곱창 구이 음식점이 있습니다.

00:00:45.333 --> 00:00:52.301

그런데 그 오발탄을 어떻게  
저렇게 곱창 구이 집 이름으로 쓸까?

00:00:52.326 --> 00:00:54.502

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

00:00:55.129 --> 00:00:58.138

주인한테 그걸 물어보지는 않았어요.

00:00:58.163 --> 00:01:02.604

그런데 이제 오발탄이라고 하는  
작품은 매우 알려진 작품이에요.

00:01:03.068 --> 00:01:06.649

이 작품을 쓴 이범선 소설가

00:01:06.674 --> 00:01:12.774

1920년 평안남도 안주에서  
태어났습니다.

00:01:13.137 --> 00:01:17.671

1920년~1982년까지  
이분이 살았으니까

00:01:17.696 --> 00:01:24.048

이분은 회갑을 넘기고  
한국 나이로 한 63세 정도 되죠.

00:01:24.866 --> 00:01:30.700

우리가 여기에서 함께 살펴본  
다른 작가들,

00:01:30.725 --> 00:01:36.678

20대에 요절한 작가가 많았는데

이 작가는 80을 넘겼고

00:01:36.770 --> 00:01:39.883

또 소나기를 쓴  
황순원이라고 하는 작가는

00:01:40.145 --> 00:01:44.145

1915년에 태어나서  
2000년까지 살았으니까

00:01:44.651 --> 00:01:48.890

한국 나이로 86세까지 살았습니다.

00:01:49.373 --> 00:01:51.239

이렇게 오랫동안 작품을  
쓴다고 하는 것은

00:01:51.264 --> 00:01:52.703

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.

00:01:52.728 --> 00:01:57.159

여러분, 서구 문학에 있어서  
괴테가 젊은 시절에

00:01:57.328 --> 00:02:04.293

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쓰기 전에  
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나

00:02:04.318 --> 00:02:06.590

빌헬름 마이스터의 편력시대 같은  
작품을 쓰고

00:02:06.615 --> 00:02:10.135

또 최종적으로는 파우스트라는  
소설을 썼죠.

00:02:10.160 --> 00:02:13.720

여러분, 파우스트는 괴테가  
일생에 걸쳐서 쓴 작품이에요.

00:02:13.745 --> 00:02:18.327

괴테의 문학 세계 속에는 서구 사회의  
흐름이 다 담겨 있습니다.

00:02:18.352 --> 00:02:25.090

이런 작가를 우리가 지속적 시간과  
함께한 작가,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.

00:02:27.808 --> 00:02:30.436

30이 되었을 때 월남을 했고

00:02:30.461 --> 00:02:37.629

1955년에 김동리의 추천으로  
현대문학에 암표, 일요일

00:02:37.654 --> 00:02:40.266

이런 작품들을 발표하고  
문단에 나왔습니다.

00:02:40.291 --> 00:02:43.018

이 무렵에는 여러분,

문예지의 추천을 받을 때

00:02:43.043 --> 00:02:45.360

1회로 끝나지 않고 두 번

00:02:45.385 --> 00:02:50.833

2회 추천을 받아야  
작가가 되었습니다.

00:02:51.323 --> 00:02:55.067

1957년에 학마을 사람들이라고 하는  
작품을 발표했죠.

00:02:55.092 --> 00:02:58.485

이범선이라는 작가의 이미지와  
아주 어울리는 그런 작품이죠.

00:02:58.994 --> 00:03:01.855

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고

00:03:02.567 --> 00:03:05.887

사망보류라고 하는 작품을  
이어서 발표함으로써

00:03:05.912 --> 00:03:07.860

작가의 새로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.

00:03:07.885 --> 00:03:11.688

이분의 대표작이라고 불리는 것이  
바로 이 오발탄인데

00:03:11.713 --> 00:03:14.595

이것은 1959년에 나온 작품입니다.

00:03:15.063 --> 00:03:20.178

그래서 작품 활동을 한 기간이  
27년 정도 됩니다.

00:03:20.203 --> 00:03:24.620

그동안에 장편 소설이  
한 10편이 넘고

00:03:25.192 --> 00:03:30.216

단편은 장편을 포함하면  
한 90편 가까이 되니까

00:03:30.241 --> 00:03:31.941

80편 정도 되겠죠.

00:03:31.966 --> 00:03:34.344

그와 같은 작품 세계를 보여줍니다.

00:03:34.571 --> 00:03:40.700

전쟁을 직접 경험했고 그다음에  
월남한 실향민이었던 까닭으로

00:03:40.725 --> 00:03:46.970

이범선이라는 작가는 전쟁과 관련된  
문제 또 실향민의 문제에 대한

00:03:46.995 --> 00:03:49.402

지속적인 관심을 보였고

00:03:49.427 --> 00:03:53.775

그와 같은 신분의 정체성을  
작품 속에서 표현하려고

00:03:53.800 --> 00:03:55.234

애를 썼습니다.

00:03:56.150 --> 00:04:00.066

그런데 이 전쟁 속에서도  
이범선이 지키고자 했던 것은

00:04:00.091 --> 00:04:02.306

두고 온 고향을 생각하는 마음이나

00:04:02.331 --> 00:04:08.215

또는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 
사람들이 꼭 지켜야 할 이런 문제,

00:04:08.240 --> 00:04:13.234

전통적인 가치관을 상실하고  
불안과 허무주의에 경도되어 있는

00:04:13.259 --> 00:04:16.666

세대에 대한 부정적 시각,  
이런 것들이죠.

00:04:18.071 --> 00:04:23.966

이런 것을 소설로 드러내면서  
동시에 이것을 극복해 보려고 하는

00:04:23.991 --> 00:04:30.147

이 모습을 넘어서보려고 하는 노력이  
이범선의 소설 곳곳에 보입니다.

00:04:31.206 --> 00:04:37.145

작가 이범선은 자기가  
실향민이기 때문에

00:04:37.170 --> 00:04:41.265

실향민이 아니면 알 수 없는  
실향의식이라고 하는 것.

00:04:41.290 --> 00:04:42.697

이런 작가들이 많죠.

00:04:42.722 --> 00:04:46.722

최인훈이라고 하는 작가도 그러하고  
이호철이라는 작가도 그래요.

00:04:46.747 --> 00:04:51.008

사회의 어두운 면을 바로  
이와 같은 시각으로 고발하고

00:04:51.378 --> 00:04:58.919

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 
극복으로서 어떤 방법론을 제시하는.

00:04:58.944 --> 00:05:04.216

그러니까 이범선의 방법론이라고

하는 것은 따뜻한 인정을 제시하거나

00:05:04.241 --> 00:05:07.358

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는  
그런 것들이죠.

00:05:07.383 --> 00:05:13.117

그래서 시대 상황에 반하는,

00:05:13.142 --> 00:05:21.058

그 시대를 뛰어넘을 수 있는  
인간애의 회복, 인간 사랑의 회복,

00:05:21.083 --> 00:05:26.547

이걸 늘 작품의  
중심에 두고 있었습니다.

00:05:27.287 --> 00:05:32.579

그래서 작품의 구조라든지 기법이라든지  
문체라든지 이런 것이

00:05:34.689 --> 00:05:37.626

이런 문체를 중심으로 짜여 있고

00:05:37.651 --> 00:05:41.450

그 당시의 사회가 갖는  
부정적인 요소를

00:05:41.904 --> 00:05:45.552

소설을 통해서 고발한다고 할까?

00:05:45.871 --> 00:05:51.884

그토록 아주 강력한  
표현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

00:05:51.909 --> 00:05:54.785

그 고발의 정신이  
작품 속에 담겨 있는

00:05:54.810 --> 00:05:56.741

그런 작가였다는 것입니다.

00:05:57.321 --> 00:06:02.199

그래서 이범선 소설의 이런 의미를  
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면

00:06:02.727 --> 00:06:11.134

첫째로 해방 이후에 토지 개혁과  
뒤이은 실향민, 유교로 인한 실향민.

00:06:11.277 --> 00:06:19.942

토지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 
남북이 분단된 1945년 이후에

00:06:19.992 --> 00:06:26.407

한반도의 복녘을 장악한  
조선 공산주의자들,

00:06:26.432 --> 00:06:28.458

김일성으로 대표되는 세력이죠.

00:06:28.739 --> 00:06:31.764

1946년부터 토지 개혁이  
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.

00:06:31.789 --> 00:06:34.196

그러니까 토지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

00:06:34.221 --> 00:06:37.998

토지를 모두 몰수해서  
국가 소유로 하고

00:06:38.315 --> 00:06:42.486

그다음에 인민들에게 사용권을  
나눠 주는 이런 거죠.

00:06:44.580 --> 00:06:50.424

그래서 결국은 지주 집안이었던  
사람은 숙청을 면할 수 없고

00:06:50.449 --> 00:06:53.907

그래서 황순원 같은 작가도  
지주 집안 출신이기 때문에

00:06:53.932 --> 00:06:57.330

온 가족이 술가해서  
월남을 하게 됩니다.

00:06:57.456 --> 00:07:02.436

이범선 또한 그렇게 월남하게 되고  
월남을 하면 아무것도 없이 왔죠.

00:07:02.461 --> 00:07:06.697

그래서 여기 남한에서  
온갖 삶의 어려움을 겪게 되고

00:07:07.252 --> 00:07:11.056

이러한 실향민 체험이  
작가이기 때문에

00:07:11.081 --> 00:07:13.525

작품 세계에 그대로 반영됩니다.

00:07:14.059 --> 00:07:19.552

특히 1950년대의 격동기  
그리고 1960년대와 1970년대의

00:07:20.186 --> 00:07:23.780

사회 개발.

00:07:24.752 --> 00:07:27.595

경제 부흥을 위해서 나아가는  
그 길에서 발생하는

00:07:27.620 --> 00:07:30.563

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을  
작가로서 외면하지 않고

00:07:30.588 --> 00:07:36.601

사회의 모순과 타성화된 일상을  
작품 속에서 비판함으로써

00:07:36.626 --> 00:07:41.237  
소시민의 삶 속에서 우리가  
새롭게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

00:07:41.686 --> 00:07:46.022  
끈기 있게 추구한 작가였다,  
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.

00:07:46.624 --> 00:07:51.592  
두 번째로는 전쟁의 비극성,  
소시민의 파탄된 삶

00:07:51.617 --> 00:07:53.650  
이런 것이 주제라는 것입니다.

00:07:53.861 --> 00:07:59.652  
소설은 사실은 전쟁  
그 싸움 자체보다는

00:07:59.814 --> 00:08:05.503  
전쟁으로 인해서 겪는 국민들의  
인간 생존의 한계, 이산가족의 비애

00:08:05.528 --> 00:08:09.433  
또 이데올로기 갈등으로 인한  
사람들 사이의 분열

00:08:09.458 --> 00:08:11.251  
이런 것이 더 힘든 거죠.

00:08:11.537 --> 00:08:18.087  
학마을 사람들이나 미꾸라지  
또 갈매기, 환원, 분수령 같은

00:08:18.112 --> 00:08:22.377  
이런 작품들이 바로 그와 같은  
성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

00:08:22.523 --> 00:08:26.843  
이것은 전쟁으로 인해서  
파괴된 혈연 공동체

00:08:28.124 --> 00:08:32.795  
이것이 소중하다고 하는 표현,  
소설적 표현.

00:08:32.964 --> 00:08:35.841  
또 그렇게 해서 이것을  
재건해야 한다,

00:08:35.866 --> 00:08:43.126  
되살려야 한다고 하는 그런 의지가  
훼손된 개인을 회복하는 것이라는

00:08:43.151 --> 00:08:45.740  
이런 인식으로 소설 속에 나타납니다.

00:08:45.765 --> 00:08:48.940  
세 번째 이범선의 작품에서  
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

00:08:49.359 --> 00:08:52.913

소시민의 문제, 특히 소시민의  
사랑 문제입니다.

00:08:52.938 --> 00:08:54.999

여러분, 사랑 참 중요하죠.

00:08:55.521 --> 00:08:57.843

여러분은 어떤 사랑을 하고 계신가요?

00:08:57.868 --> 00:09:00.157

가족 간의 사랑 또는  
친구들 사이에서 사랑

00:09:00.182 --> 00:09:01.780

여러 가지 사랑이 있죠.

00:09:01.805 --> 00:09:05.805

작가들은 이 사랑의 문제를  
끊임없이 생각하고 추구합니다.

00:09:06.362 --> 00:09:12.882

일종의 교양 소설적 작품으로  
첫사랑의 실패와 좌절

00:09:12.907 --> 00:09:16.907

또 중년기의 가정 생활에 대한  
불만과 방황

00:09:16.932 --> 00:09:18.593

이런 것들을 보여주기도 하고

00:09:18.618 --> 00:09:21.939

교양 소설적이라고 하는 것은  
말하자면

00:09:21.964 --> 00:09:25.964

사회 속에서 삶의 교훈이 되는 문제  
이런 것이죠.

00:09:25.989 --> 00:09:31.860

또 노년이 되어서 옛 여인을  
다시 만나는 과정,

00:09:31.885 --> 00:09:34.552

이런 것들이 이범선 소설 속  
곳곳에 있습니다.

00:09:34.577 --> 00:09:38.577

그래서 인간의 삶 속에,  
어떤 삶?

00:09:38.602 --> 00:09:40.379

구체적인 삶 속에.

00:09:41.164 --> 00:09:45.760

그 삶 속에 자리하고 있는  
사랑의 여러 모습을 탐색한다.

00:09:46.023 --> 00:09:50.599

그러니까 소시민의 문제 가운데서도

사랑의 문제를 다룬 작품이 많다.

00:09:51.057 --> 00:09:56.566  
전쟁의 비극성과 소시민의 파편화된  
삶을 다룬다.

00:09:56.716 --> 00:09:59.708  
그리고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

00:10:00.305 --> 00:10:05.404  
토지 개혁과 전쟁으로 인한  
실항민이 된 상황.

00:10:05.429 --> 00:10:09.429  
이것을 작품을 통해서  
잘 드러낸 작가다.

00:10:10.159 --> 00:10:15.283  
이렇게 우리가 이범선을 그 시대  
상황 속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

00:10:15.525 --> 00:10:21.736  
여기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지목한  
이 오발탄이라고 하는 소설.

00:10:22.806 --> 00:10:28.424  
이 소설은 이범선을  
1950년대 전후 문학의

00:10:28.449 --> 00:10:37.911  
대표적인 작가로 입신하게 한,  
명성을 갖게 한 공이 있습니다.

00:10:40.209 --> 00:10:44.552  
오발탄이 발표되었을 때  
당시 문학계에서 매우 주목을 했고

00:10:44.577 --> 00:10:45.939  
높이 평가를 했습니다.

00:10:45.964 --> 00:10:50.880  
그것은 단순히 자극적이고 감동적인

00:10:50.905 --> 00:10:55.570  
그의 독특한 문장의  
효과 때문이 아니라

00:10:56.270 --> 00:10:57.755  
당시 한국 사회가 겪고 있던

00:10:57.780 --> 00:11:04.981  
그 문제의 정곡을  
찌르고 있었다고 하는 것.

00:11:05.304 --> 00:11:08.682  
그리고 그 사회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

00:11:08.707 --> 00:11:12.330  
많은 사람들이 허무주의에  
빠져 있었다면

00:11:12.355 --> 00:11:16.197  
오발탄이라고 하는 작품이  
바로 그런 허무주의적 사회 현실

00:11:16.222 --> 00:11:19.460  
또 허무주의에 침몰된 인간의 모습.

00:11:19.485 --> 00:11:23.341  
이것을 가장 적나라하게  
제시해 보여주었던

00:11:23.366 --> 00:11:25.412  
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

00:11:26.639 --> 00:11:32.636  
가중되는 생활의 압박  
또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는

00:11:32.661 --> 00:11:35.080  
소시민의 모습.

00:11:35.341 --> 00:11:39.778  
누구나 겪고 있던 사회의 부정적인  
현실에 대한 반감을

00:11:39.803 --> 00:11:41.915  
가장 직설적인 방법으로

00:11:41.940 --> 00:11:47.030  
그것도 고도의 메타포를 통해서  
보여주고 있는 작품이 오발탄입니다.

00:11:47.845 --> 00:11:53.879  
그런데 이 오발탄에 등장하는  
주인공 철호라고 하는 인물이

00:11:53.904 --> 00:11:57.668  
이가 아파서 치과를 가야 하는데  
택시를 타고 가는데

00:11:57.693 --> 00:12:01.087  
동생이 무슨 문제가 생기고  
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.

00:12:01.170 --> 00:12:03.966  
충치라고 하는 것,  
이가 아프다고 하는 것이

00:12:03.991 --> 00:12:09.214  
곧 이 사회의 어떤 어려움을  
하나의 객관적 상관물로서

00:12:09.239 --> 00:12:14.384  
메타포로 암시와 상징으로 보여주는  
이런 이야기입니다.

00:12:14.409 --> 00:12:16.832  
그런데 철호의 가족.

00:12:17.254 --> 00:12:21.598  
그러니까 동생 영호 또 동생 명숙

00:12:21.623 --> 00:12:27.907

그런데 영호라고 하는 인물은  
법률을 무시하고 물질적 풍요와

00:12:29.807 --> 00:12:33.463

자기만의 안녕을 추구하는  
이기주의자가 되었고

00:12:33.920 --> 00:12:37.920

또 명숙이라고 하는 동생은 양공주.

00:12:38.134 --> 00:12:40.808

그러니까 미군을 따라다니는  
여자가 되어서

00:12:40.833 --> 00:12:43.445

부도덕한 현실에 순응해 버렸습니다.

00:12:44.042 --> 00:12:47.862

그다음에 어머니는 두고 온 고향,  
월남하고 난 다음에

00:12:47.887 --> 00:12:50.504

그 고향에서 옛날에 잘 살았던  
생각을 하면서

00:12:50.548 --> 00:12:55.836

이 비참한 현실을 체험적으로  
감당을 못 합니다.

00:12:55.861 --> 00:12:58.323

그래서 실성을 해 버립니다.

00:12:59.005 --> 00:13:02.173

그런데 이 현실에 대해서도  
체험해 버리는 아내.

00:13:02.593 --> 00:13:05.711

이런 인물들이 오발탄의 인물들인데

00:13:06.319 --> 00:13:15.797

그러니까 한 가족을 통해서 건강한,  
올바른 가치관이 부재한 시대의 모습을

00:13:15.848 --> 00:13:18.278

이 작품이 보여주고 있다,  
이런 얘기죠.

00:13:18.458 --> 00:13:22.022

그 속에서 이 철호라는 인물은  
양심적으로 살려고 합니다.

00:13:22.047 --> 00:13:23.863

여러분, 생각해 보십시오.

00:13:24.288 --> 00:13:29.027

전혀 양심적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 
양심을 지키고

00:13:29.487 --> 00:13:32.892

또 올곧게 살려고 한다면

00:13:32.917 --> 00:13:36.917

얼마나 그것이 어렵고  
고통스럽겠는가?

00:13:37.114 --> 00:13:39.075

김현이라고 하는 평론가는

00:13:41.329 --> 00:13:45.576

부정부패한 생활과 삶에 대한  
절망 때문에

00:13:45.601 --> 00:13:50.030

정신의 지주를 잃은 전후의 상황.

00:13:50.055 --> 00:13:55.753

이것에 대해서 이범선이라는 작가가  
철호라는 인물을 내세워서

00:13:56.237 --> 00:13:58.375

이 사회 현실을 고발하고

00:13:58.400 --> 00:14:05.951

또 소시민으로서의 항변을 보여주는  
이런 작품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.

00:14:06.207 --> 00:14:10.984

그런데 실성한 어머니가 끊임없이  
가자, 가자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.

00:14:11.009 --> 00:14:13.915

이건 어디냐 하면  
자기가 평화롭게 잘 살던

00:14:13.940 --> 00:14:15.911

고향으로 돌아가자는 얘기입니다.

00:14:15.936 --> 00:14:17.620

갈 수가 있습니까?  
못 갑니다.

00:14:17.645 --> 00:14:19.589

못 가지만 가자, 가자라고 하는

00:14:19.614 --> 00:14:24.181

그 실성한 여인의 외침은  
남아 있단 말이죠.

00:14:24.217 --> 00:14:29.997

암울한 가족적 배경 속에서  
간헐적으로 반복되는 이 외침.

00:14:30.022 --> 00:14:34.427

가자, 가자라고 하는 말은  
철호라고 하는 주인공에게

00:14:34.452 --> 00:14:38.311

현실의 압박을 가장 강박적으로  
느끼게 하는 효과음이다,

00:14:38.336 --> 00:14:40.316

이렇게 말할 수 있고

00:14:40.341 --> 00:14:44.537

또 소설의 분위기를 암울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.

00:14:44.773 --> 00:14:49.875

늙은, 연로한, 실성한 어머니가 원하는 고향은

00:14:50.140 --> 00:14:58.208

분단과 전쟁으로 인해 실향민이 된 사람들의 삶의 가치가 훼손되기 이전에

00:14:58.338 --> 00:15:04.287

그 과거의 아름다웠던 그리고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그 삶.

00:15:04.312 --> 00:15:07.680

그 삶으로의 회귀 이것을 꿈꾸고 있는 거죠.

00:15:07.705 --> 00:15:13.533

그러니까 이 작품은 말하자면 전후.

00:15:13.558 --> 00:15:16.924

이건 우리가 통틀어서 전후 문학이라고 부릅니다만

00:15:16.949 --> 00:15:22.523

전쟁 이후의 문학 가운데서 그 암울한 사회 현실을 보여주고

00:15:22.548 --> 00:15:24.314

그 암울한 사회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

00:15:24.339 --> 00:15:28.629

가족 구성원들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보여주고

00:15:28.654 --> 00:15:34.158

철호라고 하는 인물의 아픈 이와 실성한 어머니의 외침.

00:15:34.183 --> 00:15:39.565

이것이 이를 문제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표상하고 있는.

00:15:39.590 --> 00:15:43.590

그래서 이런 전후 사회의 모습을

00:15:43.615 --> 00:15:48.523

잘 짜인 소설 한 편의 구조로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다,

00:15:48.644 --> 00:15:50.661

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.

00:15:50.686 --> 00:15:55.266

여러분, 지금 우리는

1950년대 후반

00:15:55.291 --> 00:15:57.922  
그때로부터 많은 세월을 보냈습니다.

00:15:57.947 --> 00:15:59.900  
여러 세대가 지나갔습니다.

00:16:00.142 --> 00:16:02.028  
그런데 여러분의 삶은 어떤가요?

00:16:02.287 --> 00:16:07.692  
우리의 삶은 평안하고 행복하고  
자유스럽고 이런 것일까요?

00:16:07.717 --> 00:16:08.398  
아니요.

00:16:08.423 --> 00:16:12.007  
누구나 다 자기가 짊어지고  
가야 하는 짐이 있죠.

00:16:12.213 --> 00:16:17.484  
그런 짐 속에서 우리가 어떤  
고통스러운 것을 겪는다고 할지라도

00:16:17.755 --> 00:16:22.006  
그럴 때 여러분, 이 오발탄이라는  
소설을 한번 읽어보십시오.

00:16:22.224 --> 00:16:27.304  
이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 
과거에 사람들이 살아남았고

00:16:27.414 --> 00:16:31.414  
그것을 문학으로 표현했고  
오늘 우리가 그것을 읽고 있고

00:16:31.687 --> 00:16:33.857  
이런 상황에까지 이르렀죠.

00:16:33.882 --> 00:16:36.417  
세상은 많이 나아졌죠,  
많이 달라지고.

00:16:36.442 --> 00:16:42.521  
사람은 어려움을 어렵다고  
생각하는 정도가 어떠냐에 따라서

00:16:42.546 --> 00:16:44.518  
고통을 느끼는 강도가 다릅니다.

00:16:44.543 --> 00:16:50.124  
그래서 우리보다 훨씬 어려웠던  
시기에 우리 국민 모두가

00:16:50.149 --> 00:16:55.851  
그 암울한 터널과도 같은 이 시기를,  
이 과정을 지나왔다는 것을 생각하면서

00:16:56.698 --> 00:17:02.890

이 시대의 우리가 나쁜만 아니라  
우리 사회, 우리 시대

**00:17:02.915 --> 00:17:07.753**

이 시대가 어떤 새로운 방향을  
향해서 함께 갈 수 있도록

**00:17:07.778 --> 00:17:10.134**

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는 게  
좋겠습니다.

**00:17:10.159 --> 00:17:15.859**

시간이 되실 때 이범선의 오발탄을  
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